

원주 아버지 학교 루마니아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 지도자 영성훈련원 공사 아웃리치 2018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빠체 보우어!(루마니아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선교사의 삶, 가정 그리고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 아버지가 일하시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 아버지가 일하시는 아버지학교, 부부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가 일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삶, 아버지가 일하시는 미생물 유기농법과 고등학생 장학지원 미니 농장, 아버지가 일하시는 A, B, C 지역 셀교회 초소 진지사수, 아버지가 일하시는 세례교인들 정체성 회복, 아버지가 일하시는 깔러라쉬 주 로컬 교회들의 십자가 복음으로의 무장화, 아버지가 일하시는 루마니아 42 개주를 향한 향후 10 년 천국 복음화, 아버지가 일하시는 병참지원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동역자님들과 개개인 성도님들과 주안에서의 형제 자매님들..... 2018 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해로 그 표어를 외치며 눈물로 기도의 성벽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쌓고 또 살아 올렸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164 센치 박창수와 심은식 선교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164 센치의 삶속에 살아숨쉬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눈물로 소원하고.....

고 엘레나 전도사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으로 시작한 지도자 영성훈련원과 인조잔디 축구장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설때에는 고 엘레나 전도사님을 기쁨중에 만나고 살아생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누었던 대화들 “야 사랑하는 엘레나 자매님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갈거니까 므너스띠레아 면 소재지 공동묘지에 묻혀서 너를 기다릴거야!” 이 아직도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기에 지도자 영성훈련원 공사를 마치고 나면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로컬 집시교회 지도자들(장로와 집사들)이 인텐시브 한주간씩 합숙을 하면서 영성훈련을 받게되겠고 그 결과로 인하여 로컬 교회 하부조직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앞당겨서 이루어 드리는 성령님께서 살아숨쉬는 다이나믹한 프로젝트와 함께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164 센치 박창수 선교사와 심은식 선교사는 소망이 넘치고 가슴이 뛰고.....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만세 만세 만만세!.....

2011 년에 고 엘레나 전도사님의 십자가 복음 선교열정으로 시작한 걸러라쉬 주안에 있는 집시교회 지도자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영성훈련원 센터로서의 사명을 감당 해 낼 건축시작은 이렇게 큰 꿈과 비전으로 시작은 했었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사역이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면 공사가 계속되었었고 안그러면 다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 년동안 건축허가가 이미 끝났었고 2016 년에 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그동안 설계사가 너무나 악하고 게으른 탓에 불이익을 수없이 당해야 했고.....그렇더라도 하나님은 164 센치와 심은식 선교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선교사 편에 서서 일하는 그리스 인 설계사를 불허하시고..... 그것이 아이러니 하게도 2018 년 164 센치와 심은식 선교사가 말씀이 일하시는 표어를 내건 기도응답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응답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방법에 걸려서 거의 1 년을 인내로 기다렸었는데 설계사 덕분에 잘 통과되었고 다음주 쯤에는 건축허가서가 면사무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놀물로 감사 감사 감사..... 고 엘레나 전도사님을 기쁨중에 천국에 만나볼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인사말을 할까를 고민해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교에 별고 관심이 없이 남의 일처럼 나몰라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와 함께 일하셨고 일하시고 일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기에..... 2019 년에는 공사를 완성하고 기쁨과 감사와 눈물의 헌당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7 년동안 눈물의 기도와 선교헌금을 보내주셨고 함께 레슬링하여 주신 교화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조금 씩 조금 씩 지도자 영성 훈련원의 그 틀을 만들어 올수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018 년은 4/4 분기는 원주 아버지 학교 3 분의 아웃리치 형제님들께서 오셔서 2 층 숙소 천장과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아버지 학교 아웃리치 팀 역시 각자가 너무나 바쁜 농사일과 개인사업을 3 주간이나 올 스톱을 하고서 멀고도 머나먼 길 루마니아 땅까지 오셔서 70 이 가까운 연세에도 아랑곳 하시지 않고 생명을 다 드려서 좀더 많은 일을 마치시고 갈까를 고민하시면서 지도자 영성훈련원 공사를 몸 사리지 않으시고 애써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2019 년은 어찌하든 간에 공사를 마치고 한당예배를 아버지께 올려 드리고 다이내믹한 사역들을 펼치며 아버지가 그토록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천국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섬기기를 다하고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미장공, 타이루 공, 화장실과 부엌 샤워실

그리고 1 층 교회 천장공사와 보일러 시스템 난방공사등 현재 남은 공사에 필요한 전문 일력들이 아웃리치로 오셔서 공사를 마쳐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득한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의 그 꿈을 함께 지어가고 이루어 아기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고 엘레나 전도사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갯세마네 집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고 아버지가 소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인격과 섬품과 형상으로 기름부음 받기를 소원하며 갈 2:20 의 말씀이 살아서 일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선교사의 삶속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2019 년의 영광의 해를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루마니아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후방의 영적 기도 불침번 전사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싸워 주십시오.

최 전방 선교사와 함께 영적 전투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기회가 되신다면 물질적인 도움을 직접 주셔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시간이 허락되시면 아버지가 주신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시고 루마니아로 오셔서 아버지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모든 일을 뒤로하시고 머나먼 루마니아 땅까지 단숨에 달려오셔서 3 주동안 함께 싸워주시고 고민하시고 가슴아파 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여 주신 원주 아버지학교 3 인방 아웃리치 팀원들 이재현 권사님 원장식 장로님 한태수 장로님께 진심으로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안에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의 사명을 충실하시고 다 함께 공중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 년 갯세마네 집시교회 공동체 지도자 영성훈련원 헌당식 때 다 함께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을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박창수 심은식 선교사 드림









